



19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파리시청. 여름이면 일광욕을, 겨울이면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다.



런던 템즈강 주변 영국 중앙정부청사가 몰려 있는 화이트홀.

##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30> 유럽편 '도시와 공공청사'



지난 2002년 타워브릿지 옆 템즈강 둔치에 들어선 런던시청. 시가지에서부터 긴 물길에 이곳까지 인도한 뒤 분수가 된다. 독특한 디자인은 물론 친환경 건축물로, 그 주변 점포, 카페 등에는 관광객들로 붐빈다.

# '어깨 힘' 뺀 시청사, 시민 화합의 장소로 탈바꿈



녹지 속에 안착해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한 공공청사.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1층 목조 시청사.

공공청사는 그 도시의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축물의 규모 및 디자인, 내부 구성, 그 주변 녹지나 광장, 교통연계 등을 통해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유럽 도시 내 공공청사는 중세나 근대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최근 들어 신축한 경우는 태양열이나 바람, 빗물 등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친환경 건축물'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또 이들 공공청사는 주변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 또 다른 청사, 편의시설 등이 집적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흠어지는 집산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주변에는 상점, 음식점, 카페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북적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런던시청은 유명한 타워 브릿지(Tower Bridge)가 바로 보이는 템즈강 둔치에 건립됐으며 세계 유명 건축가인 노먼 포스터에 의해 설계됐다. 본래 런던시청은 영국 정부청사들이 모여있는 화이트홀(Whitehall) 인근에 있었으나 2002년 이 건물이 준공되면서 옮겨왔다. 옛 런던시청은 수족관과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축된 런던시청은 유리달걀(the glass egg)이라고도 하는데, 10층 규모의 높이 45m로 건물 외벽은 유리로 되어있다.

### 런던-친환경 유리벽 건축물, 템즈강과 어울려 관광명소 덴하그-사무실 등과 복합개발...내부 개방해 소통 중시 프라이부르크-사진 등으로 도시역사 설명해 정체성 부여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건물은 남쪽으로 기울려 직사광선을 피하고 자연적으로 그늘이 지도록 했으며, 패널 아래쪽에는 단열판을 설치해 열손실을 줄였다.

또 창문을 통해 자연 환기를 유도하며 냉각기 가동을 줄였고, 빗방은 2개의 출에서 나오는 빗수를 이용한 뒤 다시 화장실에 사용한다. 건물 모양 자체도 동근 형태로 사각형 건물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 설계를 맡은 노먼 포스터는 템즈강에 놓인 거대한 천구(Giant Sphere)를 상상하며 디자인했다고 한다. 타워 브릿지, 템즈강, 런던시청 등이 있는 이 일대는 작은 수로로 연결해 템즈강 앞

광장에서 분수대를 만들며 대표적인 관광지가 됐다. 그 주변에는 당연히 카페 등이 몰려 있다.

영국 정부청사가 밀집된 화이트홀 인근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빅벤, 국회의사당, 높이 135m의 런던아이 등이 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시 건축국(Housing and Nature)과 덴 하그(헤이그) 시청 역시 최근 신축된 건물이다. 암스테르담시 건축국 건물은 태양열을 건물 에너지원으로 하고 통풍을 중시했다. 건축물을 복합개발해 다른 공공기관, 민간사무실 및 주택 등이 자리하고 있다. 덴 하그 시청 바로 인근에 문화에 슬하관이 있고 내부에는 식당, 카페, 도서관, 외국인 센터 등이 존재하며, 1층은 전시공간으로 쓰이고 있

다. 개방, 소통, 백색의 순결 등을 설계 주제로 했다.

19세기 지어진 파리시청사는 원래 샬레(Chatelet) 광장에 있었으나, 1357년 약간 동쪽으로 이전, 지금의 위치에 세워졌다고 한다. 1871년 화재로 불에 탔지만 1882년에 원 모습대로 복원됐다. 건물 중앙에 있는 시계 밑에는 프랑스혁명의 3대 정신, '자유, 평등, 박애'가 새겨져 있다. 시청에서는 정기적으로 무료전람회를 여는 등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여름이면 야자나무와 오아시스, 비치발리볼 코트, 탁외실을 설치, 도심 한복판에서 해변에 온 듯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고, 겨울이면 조명을 곁들인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여가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봄에 찾은 파리시청 앞 광장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스트라스부르 시청은 노면전철과 자전거로 연결돼 있다. 시청사 전면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있으며, 시청은 비교적 시 외곽에 들어서 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청사는 가장 특이한 형태다. 1층 목조건물이며, 들어서는 입구부터 도시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 도면, 설명 등이 도배돼 있다. 누구나 시청을 찾으면 그 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글·사진=윤현석기자 chadok@kwangju.co.kr

www.oknwood.com

편백나무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목조주택 & 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 친환경 제품
  - 한국 편백, 일본 편백 · 황토보드, 게르마늄 분말(황토, 게르마늄 토일)
  - 친환경 흡음재, 친환경 단열재, 불연칼라 내장 마감재, 목도보드
- 각종 내장재
  - 특수목, 남미산천연티크재, 독일산 아이아(오일스테인), 연동도어, 보석유리, 접합유리방염, 필름합판, 문짝, 돌딩
- 판매품목
  - 장농 · 5단서랍장 · 수납공간 · 불박이장 · 족욕기 · 독서대 · 책상Set(의자 · 책꽂이)
  - 침대 · 샵롱 · 편백건강베개(편백색이 + 결명자색이) · 편백나무베개 · 편백가습기 수백

편백나무 인테리어 상담 및 편백주문제작 전국·전남북·시·군 대리점 모집 판매 및 창업문의 010-3609-4321

편백나무가구 전문업체 광남종합목재건축재상사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 062) 652-2935 · 2223 fax. 062) 651-5141

합력사 | 우던페이퍼몰딩 | 태원목재 호남총판 | KCC석고보드총판 | 라파즈 석고보드 총판 | KCC강화마루 | 동화마루 대리점 | 레토피아 합성목재 호남총판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물, 모방물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쪽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798

전남 (061)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